

2016.10.08~14

#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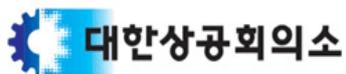
## 주요 베트남비즈니스 정보

### Contents

####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베트남기업 동향

####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베트남사무소



##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코트라, 베트남 최대 산단 동나이성과 투자유치 설명회
- ▶ 한국, 베트남 소수민족 직업전문대 시설 확 바뀌겠다
- ▶ SK 텔레콤 T 전화, 베트남 영토확장 본격 착수
- ▶ 마켓히어로] KPF, 베트남·中 해외법인 부진 털고 실적 견인... 새 도약 초석으로
- ▶ 한국기업, 박닝성에 경마장 투자 원해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베트남과 유라시아 경제 연합 FTA 정식 발효, 무역액 3배로 증가
- ▶ 일본- 베트남 각 지방 협력 관계 넓혀
- ▶ PropertyGuru, 베트남의 부동산 사이트에 투자

### ◆ 베트남기업 동향

- ▶ 베트남 중부 빈딘 성, 정유소 등 환경 오염 프로젝트는 유치하지 않기로
- ▶ 비나밀크, 첫 온라인 판매
- ▶ 비영리사업, 시민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 ▶ 수출 품목 및 서비스 관련 세금 환급 안내
- ▶ 맥주, 음료 생산업 에너지 상요 정도 규정
- ▶ 원산지 증명서 제출 기한,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
- ▶ 연초 9개월간의 신규 법인설립 8만 1451개,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
- ▶ 베트남 교통 운수부, PPP 방식 안전 관련 웹 사이트 개설, 2개 언어 대응
- ▶ 맥주 2사 상장은 2017년으로 지연, 절차상 시간이 더 필요
- ▶ 베트남 편의점 미니 마트 급성장, 닐슨 조사
- ▶ 베트남 제3분기 실업률 2.34%로 악화, 해양 오염으로 어민 실업에 영향



## 대한상공회의소

- ▶ 하노이: Yên Xá 하수 처리장 건설에 착공, 투자 총액 16 조 VND
- ▶ 베트남산 용안, 말레이시아에 첫 수출
- ▶ 안전한 농산품 시장, 손님들에게 신용 얻어
- ▶ IT 분야 직원, 다른 분야보다 월급 3~4 배 높아
- ▶ 베트남 공업단지 임대율 70%달성



##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코트라, 베트남 최대 산업단지 동나이성과 투자유치 설명회

- 코트라(KOTRA)는 베트남 최대 산업단지 지역이자 남부경제의 중심인 동나이성 정부와 함께 지난 13 일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 일 밝힘
- 동나이성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외국인투자 지역 중 하나로, 한국기업이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많이 투자한 지역이기도 하다. 효성[004800] 등 300 여개 기업이 371 개 프로젝트를 통해 약 54 억달러(한화 약 6 조 1 천억원)를 투자함
- 행사에는 효성, 포스코[005490], 신한은행 등 이 지역에 투자한 한국기업이 경험을 공유하며 참가기업에 투자 정보를 제공함
- 효성 베트남법인 관계자는 "효성은 지금까지 13 억달러(1 조 4 천 500 억원)를 동나이성에 투자해 축구장 90 개 크기의 생산기지를 갖춰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1%인 연간 15 억달러(1 조 7 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함
- 코트라 관계자는 "동나이성은 전통적인 투자유치 분야인 제조업 이외에도 다양한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할 투자 파트너 발굴도 희망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은 베트남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살려 투자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출처: Yonhapnews, 10.14

#### 한국, 베트남 소수민족 직업전문대 시설 확 바뀌겠다

-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베트남 유일의 소수민족 직업전문대인 '닥락성 소수민족 청소년 직업훈련대학'의 시설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11 일 현지에서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힘
- 3년제인 이 학교는 중부 고원지대인 닥락성에 있으며, 34 개 소수민족 출신 2 천 200 여 명이 재학하고 있음
- 이혁 주베트남 대사는 준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 대학의 직업훈련 장비가 노후화돼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경제와 산업구조 재편에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을 가로막고 있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개발수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KOICA 를 통해 '소수민족 청소년 직업대학 향상 사업'을 전개했다"고 설명함

○ 그는 이어 "한국은 베트남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서 베트남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고급인력 양성 정책, 산업화 정책을 지원할 것이며 이번 사업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함

○ KOICA 와 닥락성인민위원회가 개최한 준공식에는 이 대사와 장재운 KOICA 베트남 소장, 장형성 신한대 교수, 허 임 卍 卍 닥락성 부성장, 라 란 본 가 직업전문대 총장 등이 참석함

○ 앞서 KOICA 는 지난 2010 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소수민족에 최신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12 년 협의의사록을 작성했으며 3 년 뒤 착공식을 열고 개선 사업에 나섬

○ KOICA 는 총 500 만 달러를 들여 자동차학과, 전기전자학과, IT 학과가 실습할 수 있는 건물 1 개동, 행정동, 여학생 기숙사를 신축했고, 각종 기자재와 행정지원용 차량 등을 지원함

○ 또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베트남과 한국에서 각 3 개월의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문가 5 명을 현지에 파견했다. 연수교육은 신한대가 맡음

○ 한국은 지난 20 년간 베트남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인적자원개발과 직업훈련 지원을 진행함

○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 사업(2010~2014 년·1 천만 달러), 팡찌성 중급직업훈련학교 개선 사업(2011~2013·470 만 달러) 등 6 개 직업훈련대학을 설립 또는 개선 사업을 시행함

○ 이들 대학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5 년마다 정하는 우수직업훈련학교에 포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출처: Yonhapnews, 10.11

### SK 텔레콤 T 전화, 베트남 영토확장 본격 착수

○ SK 텔레콤이 전화 플랫폼 서비스 'T 전화'의 내년 초 베트남 진출을 본격화하고자 쟁결음에 나섬

○ 14 일 관련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SK 텔레콤은 내년 초 동남아시아 론칭을 공언했던 T 전화 사업 속도를 내고자 다음 달 23 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베트남 공식방문 일정에 맞춰 현지 로드쇼와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 중임



- SK 텔레콤은 그동안 글로벌 통신 사업에서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이를 만회하고자 플랫폼 사업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 새로운 출사표를 던짐
- 지난해 취임한 장동현 사장은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SK 텔레콤은 T 전화로 연내 북미 지역에 진출하고 내년 초까지 유럽과 동남아 시장도 공략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현재 1000만 명 수준인 가입자를 이르면 시일 안에 1억 명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우선 과제임
- 2014년 2월 출시된 T 전화는 통신사가 개발한 전화 플랫폼이다. △전화번호를 통한 정보 제공 △이용 패턴에 맞춘 통화 서비스 △스팸 전화 필터링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SK 텔레콤 전용폰에서 시작해 올해부터 KT와 LG 유플러스 가입자에게도 개방돼 있음
- SK 텔레콤은 2001년 베트남 정부와 합작으로 ‘S 폰’을 선보였지만 2009년 성과 없이 철수했다. 15년 만에 플랫폼 사업 진출을 공언한 만큼 SK 텔레콤은 이번 로드쇼와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현지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임
- 미래부 역시 SK 텔레콤의 베트남 진출에 힘을 보탬 것으로 보인다. 최양희 장관이 다음 달 23일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참석을 위해 베트남을 공식 방문해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과 양국의 사업교류를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임
- 미래부 관계자는 “다음 달 23일 최양희 장관이 과학기술위원회 참석을 위해 베트남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며 “현재 베트남 정부와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 중이어서 참여 기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기업의 로드쇼와 비즈니스미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출처: Etoday.co.kr, 10.14

## 마켓히어로] KPF, 베트남·中 해외법인 부진 털고 실적 견인... 새 도약 초석으로

- 파스너 및 자동차용 부품 전문기업 케이피에프(KPF)가 해외법인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역량을 확대함
- 케이피에프는 건설, 산업기계, 플랜트, 중장비 등에 쓰이는 산업용 파스너(볼트, 너트, 와셔 등) 및 베어링, 기어류 등 자동차용 부품 전문 기업임



## 대한상공회의소

- 1963년 10월 전신인 파스너 전문 제조 기업 한국볼트로 시작했으며, 1994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함
- 2006년 자동차 부품 분야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생산규모, 기술력, 시스템 등 다방면의 고도화를 이루면서 해외 선두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
- 특히 급변하는 세계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및 중국 현지에 제조공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유럽 판매망을 구축함
- 지난해에는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통법인 케이피에프글로벌(KPF Global)을 설립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음
- 케이피에프의 주력 제품은 산업용 파스너로 건설, 플랜트, 장비, 에너지산업 분야의 전 세계 300여 고객사에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 파스너 산업은 세계 시장 규모가 100조 원에 이르는 큰 시장이며, 상대적으로 기술변화의 속도가 느려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 또한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에서는 세계적인 베어링 브랜드사(社)에 베어링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자동차 미션의 고단화에 따라 기어 부품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 외에도 다양한 자동차 부품 양산화를 추진해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이뤄가고 있음
- 동시에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유럽 및 일본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도 적극 투자해 새로운 이익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기존 제품에서는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새로운 기술의 제품을 통해 수익을 끌어올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임
- 케이피에프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3291억 원, 영업이익 166억 원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소폭 상승했으나, 영업이익은 63%의 증가율을 기록함
- 올해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 1711억 원, 영업이익 93억 원으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 베트남 및 중국 등에 소재한 해외법인의 수익성 개선이 케이피에프의 호실적을 견인하기 시작했다. 2012년만 해도 영업이익 기준 86억 원의 적자를 냈던 해외법인이 올 상반기 18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는 등 케이피에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케이피에프가 현지 법인을 둔 베트남 시장은 중국에 있던 전 세계 전자 및 섬유 공장들의 이전으로 철골 구조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 내에는 아직 경쟁력 있는 파스너 공장이 없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케이피에프는 곧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직접 공급을 시작함으로써 내수 시장 선점에 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임
- 현재는 본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외 EPC(설계·조달·시공 원스톱 제공) 업체 및 철골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 반면, 중국 법인은 중국 내수 승용차 시장의 성장과 국내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선전으로 높은 매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법인의 최근 매출액을 보면 2014년 35억 원, 2015년 117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22억 원을 달성해 이미 작년 매출을 넘어섬
- 회사 측은 “중전까지는 해외법인의 부진으로 회사가 다소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해외법인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실적이 호전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초석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시장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적정 주가 형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함
- 한편, 케이피에프는 안정적 이익잉여금이 확보돼 있던 2015년에는 주당 150원의 배당을 실시했으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2014년에도 100원의 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주친화적 배당 성향을 견지하고 있음
- 도성득 케이피에프 대표는 “상장사로서 당사를 믿고 지지해주는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른 결정”이라며 “꾸준한 성장을 통해 배당금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출처: Etoday.co.kr, 10.11

### 한국기업, 박닝성에 경마장 투자 원해

- 최학수 한국경마협회 회장은 박닝 (Bác Ninh)성에 투자협력 할기회를 찾기 위해 이성의 인민위원회와 면담을 가짐
- 면담회에서 최학수 회장은 이번 박닝성 방문은 투언타잉 (Thuận Thành)현에 5억달러를 투자하여 종합오락 경마장을 건설하는 것이라 전함



- 경마장이 건설되면 공동체를 위한 오락스포츠를 공급하여 5,000 ~ 10,000 명 정도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어 박닌성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응웬뜨끼잉 (Nguyễn Từ Quỳnh) 인민위원회 주석은 한국경마협회가 투언타잉현에 경마장 건설을 환영한다고 전함
  - 뜨끼잉 주석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가능성이 높고 투자규모가 크며 정부총리의 동의를 필요한 사업분야라 평가함
  - 뜨끼잉 주석은 또한 경마협회가 연관된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규정에 따른 수속을 완성, 정부총리에게 승인할 것을 제안함
  - 인민위원회 주석은 정부총리의 동의 결정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플젝트가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적수속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소식에 따르면 투언타잉현에는 현재 27 홀 골프장 프로젝트가 건설 중임
- \* 출처: Vietnam-Korea Times, 10.11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베트남과 유라시아 경제 연합 FTA 정식 발효, 무역액 3배로 증가

- 베트남과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자유 무역 협정(VN-EAEU FTA)이 각국 국회 비준을 거쳐 10 월 5 일 정식 발효됨
- 발효에 따른 상공부 및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의 5 개국의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하노이시에서 이날 기자 회견을 개최함
- 베트남과 유라시아 경제 연합은 2013 년 3 월에 협상을 개시하고 2 년 협상 기간을 거쳐서 2015 년 5 월 29 일에 정식 서명했다. 유라시아 경제 연합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는 것은 베트남이 처음임
- 이 FTA 발효에 따른 베트남과 유라시아 경제 연합은 각각 국내 시장의 9 할을 개방한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우유나 유제품 등 축산물, 곡물 제품 등의 농산물, 기계 설비, 차량 등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림
- 한편 유라시아 경제 연합은 수산물, 농산물, 봉제품, 피혁·신발 제품, 목재 제품 등의 관세를 내림



○ 관세 인하로 양측 교역액은 2014 년 40 억 USD 에서 2020 년에는 2.5~3 배의 100 억~120 억 USD 에 증가할 전망이다

\* 출처: Vinahanin.com, 10.08

## 일본- 베트남 각 지방 협력 관계 넓혀

○ 지난 10 월 4 일 주석궁에서 쩌다이꽁 (Trần Đại Quang) 주석은 일본- 베트남 사카이 (Sakai)시 우호협회 회장인 Hitoshi Kato 씨를 접견함

○ 접견 후 회담에서 쩌다이꽁 주석은 베트남- 일본 관계가 전면적인 분야에서 강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쁨을 표시했으며, 베트남 정부는 양국 지방의 협력관계와 교류를 넓히는 방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함

○ 특히 일본의 칸사이 지역은 양국의 전략적 관계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함

○ 주석은 사카이가 베트남의 지방인 다낭, 광닌, 광남 등의 지역과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Hitoshi Kato 회장이 사카이사과 베트남측 지방간의 교류, 경제 협력에 기여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와 함께 감사를 보내기도 했다.또 칸사이 지역에 살고 있는 베트남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기도 함

○ 이외에 이번 협회측이 빈딘 (Bình Định)성에 기술 이전과 함께 지원한 지역 어선에 대한 조명 장비 지원에 대한 감사를 건넸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술 지원을 부탁함

○ 이에 대해 Hitoshi Kato 회장은 오사카에 있는 베트남 총영사관이 사카이사 일본- 베트남 우호 협회와 베트남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특히 빈딘성 어업 지원은 많은 경험을 가진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본 국제 협력 기관인 JICA 와 일본- 베트남 사카이사 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라고 소개하기도 함

○ 또 Hitosi Kato 회장은 앞으로도 빈딘성 어부들에 대한 기술, 보관, 처리를 지원하여 어업 분야에 대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를 통한 높은 품질의 상품으로 빈딘성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소망한다고 전함

\*출처: Vietnam-Korea Times, 10.11



**PropertyGuru, 베트남의 부동산 사이트에 투자**  
**PropertyGuru 와 batdongsan.com.vn 간의 전략적 협력체결식**

- 부동산시장이 투명하지 못한 것은 정보부족이 원인이다. 부동산 정보를 베트남의 고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에 투자를 하는 것임
- 싱가포르와 아시아의 큰 부동산그룹인 프로퍼티구루 (Property Guru)의 스티브 멜휘시 (Steve Melhuish) 경영자는 10 월 3 일 batdongsan.com.vn 과의 전략적 협력체결식에서 이러한 목표를 약속함
- 이 체결식을 통해 현재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프로퍼티구루 그룹이 batdongsan.com.vn 사이트는 베트남시장에서 매달 5,000 만의 조회수 및 200 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최대 부동산 정보통신장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스티브 멜휘시 CEO 에 따르면 프로퍼티구루는 부동산 발전업자, 투자자와 브로커들에게 부동산이 효과적으로 데이터와 신규기술 솔루션을 공급하고, 신속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음
- 프로퍼티구루는 현재 동남아시아의 4 개 국가에서 매달 500,000 개 이상의 부동산 항목이 등록되고 있으며, 매년 약 150 억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음
- Batdongsan.com.vn 의 지도부는 베트남에 대해 2020 년 인터넷 사용자가 8,200 만명에 이르고, 동남아시아의 최대 스마트폰 시장으로 판단하며 전자무역과 기술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있다고 전함
- 베트남 최대 부동산 정보통신장에 투자되는 액수는 공개되지 않지만, 레쭌언쭝 (Lê Xuân Trường)batdongsan.com.vn 의 CEO 에 따르면 베트남 투자자들은 프로퍼티구루의 상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시아의 투자자들에게 베트남의 부동산을 소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사용자는 3D 가상현실 등 프로퍼티구루의 서비스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100 만개 이상의 부동산확인이 가능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10.11



## ◆ 베트남기업 동향

베트남 중부 빈딘 성, 정유소 등 환경 오염 프로젝트는 유치하지 않기로

- Binh Dinh 성 Ho Quoc Dung 인민 위원장에 따르면 태국 기업이 계획하던 Nhon Hoi 정유소 프로젝트의 중지 후에 성은 정유 석유 화학 분야 투자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유치하지 않기로 하고 클린산업을 우선 하기로 결정함
- 성은 일본 한국 싱가포르 유럽 기업에 Nhon Hoi 공업 단지에 투자를 호소하고 있음. 9 월에는 마루베니 목재사가 목재·목제품 공장 건설을 위한 Nhon Hoi 공단 10ha 의 계약을 맺고 있다. 그 외에도 일본 기업 2 곳이 안전 야채, 물 여과 시스템 투자를 약속하고 있음
- "여전히 태국 기업으로부터 뭔가 정유소 프로젝트 관련 실행할 수 없겠느냐며 연락이 오고 있다. 단지 Formosa 와 Nghi Son 제유소의 사례에서 정유 석유 화학 사업에는 환경에의 영향이 다소간 있음
- Quy Nhon 의 바다는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성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프로젝트를 유치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Dung 위원장은 말함

\* 출처: Vinahanin.com, 10.11

## 비나밀크, 첫 온라인 판매

- 10 월 초부터 호치민시에 있는 소비자는 비나밀크(Vinamilk)의 eShop 웹사이트 ([www.giacmosuaviet.com.vn](http://www.giacmosuaviet.com.vn))에서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됨
- 이는 국내 소비분야의 기업 중 이미 존재하는 상품 소개판매 매점, 백화점 외 전자 무역장에 투자한 기업 중 하나임
- 비나밀크 eShop 에서 소비자는 비나밀크의 분말우유, 영양분말, 연유, 우유, 요거트, 음료수, 아이스크림, 원두우유, 치즈 등을 구매할 수 있음
- 상품은 생산자가 품질을 보증하며 소비자를 위해 구체적인 영향정보 또한 기재되어 있음
- 구매자는 물건을 받을시 현금으로 계산하거나 군내, 국제 카드로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함



- 10 월부터 소비자는 전자상업 페이지 첫머스아비엣에서 온라인구매가 가능함. 아침 10 시 이전 주문하면 당일에 배송함
  - 이후 주문은 확인절차 이후 24 시간 이내에 소비자에게 배달되며 최소 주문량 300,000 동부터 무료로 배송함
  - 초기에는 호치민시의 시내 군, 현에 거주하는 고객에게만 배송이 가능함
  - 비나밀크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고변경, 고객을 위한 편의증가와 새로운 판매창구 개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우유분야의 1 위 자리를 지키려는 기업의 노력입니다. 이제부터 번거롭게 이동할 필요없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원하는 상품을 고르면 배송까지 해드립니다.”라고 전함
  - 10 월 중 비나밀크 eShop 에서 구매 시 일반 매장에서와 포로모션외에도 소비자는 5% 할인, 1+1, 경품 등의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음. 웹사이트에서의 주문은 100% 경품을 받음
  - 비나밀크는 이후 온라인판매 창구를 확장해 전국의 성, 시로 범위를 넓힐 예정임
  - 올해 2 분기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 12 조 4,490 억 동의 수익을 올림. 6 개월을 보자면 비나밀크는 작년 6 개월보다 18.6% 상승한 22 조 7,820 억동의 수익을 달성하였으며 세금 이후 이익도 동기보다 33% 상승한 4 조 9,726 억동임
  - 올해 기업의 목표 수입은 44 조 5,600 억 동이며 순이익은 8 조 2,660 억동임. 6 개월만에 기업은 수입과 순이익 목표의 51%, 60%의 성과를 거둔 셈임
- \* 출처: Vietnam-Korea Times, 10.11

### 비영리사업, 시민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 빈그룹 (Vingroup)이 빈멕 (Vinmec)과 빈스쿨 (Vinschool)시스템을 비영리화해 100%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이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
-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시민이 얻는 것을 무엇인가?
- RMIT (호주)대학과 풀브라이트 (Fullbright, 미국)대학은 베트남에 존재하는 비영리사업의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의 마요클리닉 (Mayo Clinic) 병원, 클리블랜드 클리닉 (Cleveland Clinic), 존스홉킨스 메디슨 (John Hopkins Medicine), 하버드



(Harvard)대학, 예일 (Yale)대학, 스탠포드 (Stanford)대학, 한국의 삼성, 연세대, 일본의 게이오 (Keio)대학 등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의료, 교육조직은 비영리 형식으로 활동한다. 하지만 국내 사영기업이 비영리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아직 새로운 영역임

### ▲ 폴브라이트 베트남의 “평형추”?

- 모나쉬 (Monash) 의료센터 소속 끼응웬 (Qui Nguyễn) 의학전문가는 “세계의 대다수 기업들은 수익의 부분을 공공이익과 연구발전 (R&D)에 투자하고 있음
- 미국이 이 형식으로 사립대학들이 성공적으로 활동 중인 것이 좋은 예라 볼 수 있겠다. 미국의 폴브라이트 또한 베트남에서 비영리형식으로 활동함
- 만약 성장한다면 미래에는 비스쿨도 폴브라이트의 상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함
- 끼응웬 전문가에 따르면 기업이나 조직의 비영리 목표는 양측에서 이익이 발생 하나 주요 재정투자는 국가에서 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통 세금에 대한 우대를 찾음
- 구체적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비영리형식으로 활동 중인 기업들은 모든 수익을 R&D에 투자하거나 갓 졸업한 대학생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줌
- 기업은 세금과 관련한 우대정책이나 연구 후 저작권을 보장받는다. 끼응웬 전문가는 “선진 국가들이 유명한 대학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R&D 프로그램에 후원하는 기업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밝힘
- 같은 관점을 가진 응웬타잉림 (Nguyễn Thanh Lâm) 재독일 베트남 교민이자 전 비엠티 (Việt Mỹ) 기술전문대학 시스템 고급 관리자는 이 형식이 아주 좋은 형식이며 기업들이 교육, 의료에 투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고 전함
- 실제로 세계에는 항상 2개 형식의 교육, 의료 활동이 존재한다. 하나는 기업형식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분배하며 주식이 존재하므로 영리형식 활동임
- 다른 하나는 비영리형식으로 교육의 품질을 목표로 하여 학생들의 합업과 사회에서의 성공을 도모함
- 타이림 전 고급관리자는 “비영리사업에 참여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 이중 공동체 후원은 중요한 사업임
- 예를 들어 독일의 소수 차량브랜드 기업들은 비영리형식에 참여하였으며 3%의 일자리를 시각 장애인을 위해 마련해주고 있음



- 기업은 약속한 형식을 엄격히 준수해 사업하며 정부로부터 우대된 세금정책을받는다” 라며 국제대학들의 비영리 요소는 학비면제가 아니라 교육의 고품질을 위해 학비를 더 높이 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강조함
- 헝가리 (Hungary)에 거주중인 한 의료분야 투자전문가에 따르면 베트남의 비영리형식이 절실한 상황임
- 이 전문가는 “베트남은 대기업들, 사회책임이 있고 신뢰가 가며 비전이 있는 기업들이 교육, 의료분야에 투자하여야 국가의 국민을 위한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사업문화, 도덕을 설립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밝힘

### ▲ 사회를 위한 이익분배

- 제프리 퍼먼 (Jeffery Perlman)워버그핀커스 (Warburg Pincus( 투자펀드 동남아시아 담당 CEO 는 빈멕과 빈스쿨의 비영리형식 전환은 빈그룹의 중요한 전략적 정책이라 평가함
- 이번 정책은 국제관행에도 적합하며 이는 베트남의 교육과 이류분야에 헌신하겠다는 기업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 전함
- 올리버 와먼 (Oliver Wyman)의료분야 상담조직 태평양아시아 생활건강과학 담당 제레미 림 (Jeremy Lim)박사에 따르면 그룹들이 병원, 학교와 같은 비영리조직을 설립하는 것을 흔한 일임
- 예를 들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아버지 헨리 포트 (Henry Ford)의 경우 1915 년 비영리 헨리포드 건강 케어 시스템을 설립하였고 현재 5 개의 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3,000 명의 노동자를 고용 중임
- 법에 따라 병원은 비영리형식으로 활동해야하는 국가인 한국의 경우 다국적 기업인 현대, 삼성모두 한국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병원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 제레미 림 박사는 “빈그룹이 빈멕을 비영리조직으로 변경한 것은 국제관행과도 적합하며 이 그룹의 중요한 전략임
- 이에 따라 빈멕은 전국에 있는 베트남 이닌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라고 설명함

### ▲ 4 년가의 활동 후 빈멕은 국여 의료기관의 모범으로 성장했다



- 재독일 베트남교민이자 호치민시 의약대학교문인 생물학전문가 응웬득타이 (Nguyễn Đức Thái)박사는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 등 비영리조직이지만 재정이 충분하며 이익 또한 상당하다고 전함
  - 2015년 하버드대학의 수익은 45억 달러에 이르며 학교에 들어오는 후원금도 4% 상승하여 16억 달러를 달성함
  - 득타이 박사는 “이 대학들은 비영리형식으로 활동하지만 스마트 투자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많은 기업들이 후원하고 세금혜택 또한 받고 있어 활동이 아주 좋다. 증거로는 많은 과학발명, 우수한 교수진과 세계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등이다” 라고 설명함  
투자한 4 조동 이상 회수하지 않겠다 약속
  - 빈그룹은 빈백과 빈그룹에서 창출된 이익의 100%를 시스템 발전과 품질향상에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함
  - 구체적으로는 인력발전, 시설개선, 장비구매, 장학금, 과학연구활동을 위한 자금, 기술이전, 협력강화 등이 있음
  - 또한 빈그룹은 현재까지 빈백과 빈스쿨에 투자한 장비, 인사, 저작권, 기술 이전비용 등을 포함해 4 조 동이상의 자금을 회수하지 않겠다고 밝힘
- \* 출처: Vietnam-Korea Times, 10.11

##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 수출 품목 및 서비스 관련 세금 환급 안내

- 지난 2016년 8월 12일, 재무부는 2016년 7월 1일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득세법, 세금관리법의 몇몇 조항의 내용을 수정, 보충한 내용의 시행에 관해 규정한 결정서 제 100/2016/ND-CP 호를 지도하는 내용의 통지서 제 130/2016/TT-BTC 호를 공표함
- 또한 이 통지서는 수출 품목 및 서비스 관련 세금 환급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통지서 130 호는 한 달 또는 분기(신고하는 주기에 따라) 동안 수출한 품목 및 서비스의 비 공제 부가가치세가 3 억 동 이상인 경우 매달, 매 분기 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달 또는 분기 이내에 비 공제 부가가치세가 3 억 동 이하인 업장의 경우 그 다음달, 분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 월/분기 안에 수출된 품목 및 서비스가 있고, 국내에서 판매된 품목 및 서비스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 품목 및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독립적으로 계산해야 함
- 또한 수출 품목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독립적으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 전체 품목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중 수출한 품목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결정함
-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가 국내에서 사용된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제한 후에도 3 억 동 이상일 경우에는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가 국내에서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보다 적을 경우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부가가치세의 10%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 다음과 같은 경우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됨
- 수출 위탁을 받은 기업, 해외 기업과 계약을 맺은 중계 가공업체, 해외 건설 작업 이행을 위한 수출 품목을 생산 및 수출하는 기업, 현장 수출 품목을 가진 기업 등임
- 세금 환급이 되지 않은 경우는 수입 후 재수출을 하는 경우, 관세법 규정에 따라 세관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수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며, 정부가 2015년 1월 2일 공포한 결정서 제 01/2015/ND-CP 호에 세관 활동 구역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밀수입,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세관 기관이 미리 세금 환급을 진행한 후, 납세자인 수출 제품 생산업자들 중 밀수입, 수출 및 불법 무역 행위, 납세 지연, 탈세 등으로 2년 연속 적발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관리 법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고위험 부류에서 제외하기로 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10.11

### 맥주, 음료 생산업 에너지 상요 정도 규정



## 대한상공회의소

- 상공업부는 9월 14일 맥주 및 음료 생산업의 에너지 사용 정도를 규정하는 통지서 제 19/2016/TT-BTC 로홀 공표함
- 통지서 19호는 맥주 및 음료 생산업자들에게 2020년까지의 에너지 사용 정도와 2021-2025년까지의 사용 정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시행을 위한 결정 방안도 제시함. 통지서 19호는 생수 및 광천수에는 적용되지 않음
- 통지서 19호의 적용대상은 맥주 및 음료 생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기관, 개인,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업, 기관, 개인 등임
- 해당 통지서의 5조 1,2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2025년까지 맥주 및 음료 생산업체의 에너지 소모율이 규정을 넘어설 수 없음
- 만약, 에너지 소모율이 규정에 비해 높을 경우 생산기업은 반드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설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투자 프로젝트나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경우 반드시 통지서 19호의 5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 에너지 소모율을 넘어서는 안됨
- 통지서 19호는 에너지국에 통지서 19호의 내용을 시행하고 시행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각 관련 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요청함
- 에너지국은 전국적인 범위로 각 지방의 상공업 사무소와 협력하여 에너지 사용량이 규정에 적합한지 검사해야하며, 프로젝트 사업의 에너지 사용 관련 계획이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함
- 에너지국은 상공업부 장관에게 통지서 19호 5조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처벌해야한다고 지시함
- 뿐만 아니라, 상공업부 사무소는 에너지국과 협력하여 에너지 절약을 통지서 19호의 내용에 따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검사하고, 관련 내용을 지도해야 한다고 전함
- 매년 각지방의 맥주 및 음료 생산기업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하고 관련 계획이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함
- 또한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상황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통지서 19호 부록 V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에너지국과 상공업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함
- 그 외에도 맥주 및 음료 생산업에 종사하는 기관, 개인은 반드시 통지서 19호 5조항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계획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매년 1월 15일 이전에



해당 기업은 지방 상공업사무소를 통해 통지서 19 호의 부록 VI 번 규정에 따라 상공업부에 보고해야 할 책임있음

○ 통지서 19 호의 5 조항에 규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을 규정 이하로 유지하지 않거나, 관련 된 계획안을 세우지 않은 경우 현행법 규정에 따라 처벌됨. 통지서 19 호는 2016 년 11 월 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10.11

## 원산지 증명서 제출 기한,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

○ 재무부는 9 월 14 일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회원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물품들의 원산지 조사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지시 공문 제 12802/BTC-TCHQ 호를 공표함

○ 해당 공문에 따르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기한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고 함

○ 이전에는 재무부가 2016 년 3 월 25 일 공표한 통지서 제 38/2016/TT-BTC 호의 규정에 따라 세관신고자가 세관 신고 시점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통관 절차 전후에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서류를 보충하면 합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함

○ 하지만 공문 제 12802/BTC-TCHQ 이 공표되면서,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세관 신고 시점에 온 포프라인 상의 세관신고 장소에서 제출되어야 한다고 함

○ 예외적으로, 세관은 세관신고 후 보충 서류로 제출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함

○ 첫째, 수입 시점에 신고한 HS 코드의 MFN 관세율이 특별 관세 우대율과 같거나 더 낮을 경우, 세관 신고 절차 시 MFN 관세율로 신고한 기업의 경우 특별 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음

○ 통관 절차를 마친 후 관세청이 HS 코드를 재확인 시 이전에 신고한 HS 코드가 잘못된 것이었거나 기업이 HS 코드 변경을 신청한 경우, 새롭게 결정된 HS 코드는 MFN 관세율이 특별 관세 우대율 보다 높을 때,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보충 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 둘째, 수입 시점에 수입 품목이 수입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경우, 기업은 특별 우대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통관 절차 후, 관세청이나 기업에 의해 해당 수입 품목이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기업은 특별 우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또한 VK(KV)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세관 신고자는 반드시 수입 물품을 수입한 시점으로부터 1 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신고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겠다는 것을 알려야함
- 공문제 12802/BTC-TCHQ 호는 지방 관세청들에게 수출입 품목의 원산지 검사를 강화하고 관세청이 2015 년 12 월 31 일 공표한 결정서 제 4286/QD-TCHQ 호의 원산지증명 검사 규정에 따라 시행할 것을 요청함
- 2016 년 9 월 15 일 재무부가 공표한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모든 지방성, 도시가 동일하게 관세청의 지도 공문 제 8839/TCHQ-GSQL 에 따르면, 동시에 관세 절차가 진행되는 곳에서는 재무부가 공표한 지도 공문 제 12902/BTC-TCHQ 의 규정에 따름

\* 출처: Vietnam-Korea Times, 10.11

## 연초 9개월간의 신규 법인설립 8만 1451개,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

- 베트남 통계 총국(GSO)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6 년 연초 9 개월간에 전국에서 신규로 설립된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19.2% 늘어난 8 만 1451 개, 등록 자본금의 합계는 동 +49.5% 늘어난 629 조 1000 억 VND 에 달함
- 9 월에 신규 설립된 기업은 전월 대비 ▲ 13.3%, 전년 동월 대비+14.3% 늘어난 8047 개 등록 자본금의 합계는 전월 대비+7.3%, 전년 동월 대비+71.2% 늘어난 76 조 2000 억 VND 임
- 1 사 당 등록 자본금의 평균은 전월 대비+23.8%, 전년 동월 대비+50.8% 늘어난 95 억 VND 임



○ 연초 9 개월간의 신규 설립 기업 1 사 당 등록 자본금 평균은 전년 동기 대비+ 25.4% 늘어난 77 억 VND. 같은 기간에 사업을 재개한 기업은 2 만 0510 개로 전년 동기 대비+ 59.6% 증가함

○ 같은 기간에 해산한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20.2% 늘어난 8365 개. 휴업한 기업은 동 ▲ 5.3% 줄어든 4 만 5097 곳으로 1 만 6294 개가 일시 휴업, 2 만 8803 개사가 무기한 휴업 또는 해산 절차 중임

\* 출처: Vinahanin.com, 10.08

### 베트남 교통 운수부, PPP방식 안건 관련 웹 사이트 개설, 2개 언어 대응

○ 베트남 교통 운수부는 9 월, 관민 파트너십(PPP) 방식에 의한 투자 안건에 관한 정보 제공 웹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베트남어, 영어 2 개 언어에 대응하고 있음

○ 이 사이트는 투자자를 모집 중의 안건이나 건설 중인 안건, 전개 중인 안건의 투자 총액이나 규모, 투자자, 진척 사항 등의 정보 외에 PPP 에 관한 당국의 법적 문서와 안건 실시에 대한 가이드 문서 하는 지도 문서도 게재되고 있음

○ 이 사이트 개설로 교통 운수부 정보 발신 활동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고, PPP 방식의 각 안건에 관한 정보를 명확화시켜 국민과 기업에 대해서 충분하고 시기 적절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http://ppp.mt.gov.vn/pppunit/trangchu>

\* 출처: Vinahanin.com, 10.11

### 맥주 2사 상장은 2017년으로 지연, 절차상 시간이 더 필요

○ 5 일자 온라인 매체, VN 익스프레스가 로이터 통신 인용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출자 회수를 계획하고 있는 사이공 맥주, 알코올 음료 총공사(Sabeco)와 하노이 맥주, 알코올 음료 총공사(Habeco)의 주식 상장을 당초 예정인 2016 년 말로부터 2017 년 제 1 분기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밝힘

○ 정부 사이트에서 4 일에 생중계된 브리핑에서 상공부 장관이 밝혔다. 상장에 따른 절차와 Habeco 의 전략 투자자인 덴마크의 맥주 회사 칼스버그사와의 협의에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회사의 주식 상장으로 22 억달러의 매각 수입을 얻을 것으로 보임

○ 베트남 정부는 Habeco 주식의 81.79%를 보유하고 15.77%를 보유한 칼스버그에 5.77%를 추가 매각하기로 9 월에 발표. 나머지 지분은 매각하여 총 9 조동(4 억 400 만달러)를 조달할 계획.한편 정부는 Sabeco 의 보유 지분 89.59%에 대해서는 2017 년 말까지 매각 방침임

\* 출처: Vinahanin.com, 10.09

## 베트남 편의점 미니 마트 급성장, 닐슨 조사

○ 베트남의 소매 업계는 편의점이나 미니 마트가 인기로 가장 성장률이 높은 분야가 되고 있는 것이 시장 조사 회사 닐슨 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났다고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가 보도함

○ 이 리포트에 따르면 베트남 소비자의 65%가 하이퍼 마켓, 슈퍼 마켓을 이용하고 편의점 미니 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22%에 달했다. 또, 동국의 편의점 점포는 6 월 시점에 1500 개가 됨

○ 닐슨·베트남의 최고 경영자(CEO)는 동국의 소매 부문에 대해서,"매우 큰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고 지적함

○ 이 나라의 유업 회사인 비나밀트의 CEO가 옥스퍼드·비즈니스·그룹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 국가 연합(ASEAN)처럼 급속한 도시화와 소득 상승으로, 미국의 생활 스타일이 퍼지면서 패스트 무빙 소비재(FMCG=저가의 소비자용 제품)의 소비가 붐을 이루고 있다고 함

○ 또 한개당 소비자의 수는 중국이 2 만 1000 명, 한국 1800 명에 비해 베트남은 6 만 9000 명으로 투자가에 있어서도 슈퍼 마켓보다 투자 회수는 편의점이 더 바람직한 상황이다.아고 함

\* 출처: Vinahanin.com, 10.08

## 베트남 제3분기 실업률 2.34%로 악화, 해양 오염으로 어민 실업에 영향



- 베트남 통계 총국(GSO)에 의하면, 동국의 2016 년 제 3 분기(6~9 월) 실업자는 120 만명에 달하고 실업률은 2.34%로 상승함
  - 전기는 2.29%였다. 대만계 제철 회사 Formosa 에 따른 해양 오염으로 중부 여러 성의 수산업이 타격을 받아 수산업에서 다수의 실업이 발생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본다고 현지 언론 VN 익스프레스가 전함
  - GSO 관계자는 실업률 악화는 중부 하띤, 팡빈, 팡찌, 후에 4 개성이 타격을 받은 것이 한 요인이라고 지적."환경 오염이 제 3 분기 실업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라고 말함
  - 다만 이들의 성에서 영향은 다양하고, 예를 들면, 하띤 성에서는 어민들의 절반인 약 2 만 4500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동부에서는 실업률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8 월 말까지 1 만 7000 명이 외국, 특히 한국으로 일자리를 얻어 감
  - 한편 제 3 분기 신규 실업의 약 4 만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신규 졸업자라고 보고 있다.다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음
- \* 출처: Vinahanin.com, 10.08

### 하노이: Yên Xá 하수 처리장 건설에 착공, 투자 총액 16조 VND

- 하노이시는 7 일 Thanh Tri 군 Thịnh Liệt 마을에서 Yên Xá 하수 처리장 건설에 착공함
- 2019 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투자 총액은 16 조 2000 억 VND 중 85%가 국제 협력 기구(JICA)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 개발 원조(ODA)이며 나머지 15%가 하노이시의 출자가 됨
- 동시 인민 위원회에 따르면 당초의 준공 예정은 2021 년이었지만, 협의를 거듭하여 시공 기간을 2 년 단축함으로써 4000 만 USD 의 비용 삭감에 성공했다고 하고 있음
- 이 시설은 하노이시에서 처음 집 수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하수 처리장에서 하루의 처리 능력은 27 만 m<sup>3</sup>. 하수 처리장으로 이어지는 하수도는 길이 52km 에 이름
- 주변 주민과 교통에 영향을 배려하여 공사에는 Tô Lịch 강과 Lừ 강가의 땅을 드릴로 파 나가면서 하수관을 매설하는 추진 공법을 적용함



○ 그동안 주변 지역의 폐수는 하수도와 수로를 지나 Kim Ngu 강, Sét 강, Tô Lịch 강, Lừ 강과 호수에 휩쓸렸기 때문에 수질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Yên Xá 하수 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역의 수질 개선이 기대되고 있음

\* 출처: Vinahanin.com, 10.11

### 베트남산 용안, 말레이시아에 첫 수출

○ 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사관 상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산 용안 10t 이 최근 2 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말레이시아에 처음 수출됨

○ 이 상무부는 베트남의 AIC 그룹(AIC Group) 및 말레이시아의 Supreme Fresh Farm 과 협력하여 베트남산 용안의 수출에 성공했다. 베트남산 용안은 9 월 28 일 말레이시아 Matahari 슈퍼 마켓 체인에서 판매가 개시됨

○ 최근 베트남산 과일은 미국 일본 호주 등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최근에는 호주가 베트남산 망고의 수입을 정식으로 인가한 것 뿐 이 나라는 2017 년 초에 베트남산 드래곤 과일 수입도 인정할 예정임

\* 출처: Vinahanin.com, 10.12

### 안전한 농산품 시장, 손님들에게 신용 얻어

○ 호치민시 농업&농촌발전부에 따르면, 오는 10 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10 군 까오탕에 위치한동호(Dong Ho)식당 주변에 안전한 농산품 시장을 열 것이라고 밝힘

○ 호치민시 농업&농촌발전부 위 반쪽(Huynh Van Truc)부사장에 따르면 “현재 시민들의 이와 같은 장터 개념의 안전한 농산품 시장 요구가 많아 추후 빈떤군과 2 군 지역에 추가로 시장을 개장할 방침이며, 시장은 각종 야채는 물론 육류 및 즉석 바비큐도 판매할 예정임

○ 모든 육류 제품은 영양사의 감독 하에 출하된 제품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다”라고 강조함

○ 또 매주 장터는 약 20 개의 단체가 참여하며, Vietgap, Global Gap 식품 안전 인증을 받은 식품들만 판매할 예정이라고 전함



○ 쪽 부사장은 매출의 경우 3 번 장터를 개장한 매출이 약 1 억~1.7 억 동 수준이었다고 전하며, 장터는 판매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기업을 노출시켜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판매한다는 광고효과도 있다고 밝힘

○ 안전한 농산품 장터는 오는 10 월 6 일부터 10 월 10 일까지 고밥군에 있는 랑화(Lang Hoa)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97 개의 단체와 197 개의 개인 부스가 마련되어 소비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전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10.11

### IT 분야 직원, 다른 분야보다 월급 3~4 배 높아

○ IT 분야에 종사중인 직원의 73%가 경리, 행정, 세일즈, 마케팅 등 분야의 직원도다 초봉이 3~4 배 높은 평균 1,600 만동 수준인것으로 나타남

○ 비엠티웍스(VietnamWorks)는 베트남 구직자의 행동과 월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이는 2016 년 첫 6 개월 동안 웹사이트 Vietnamworks.com 에 등록된 45,000 개 이상의 일자리 월급을 종합한 데이터임

○ 보고서는 베트남웍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10 개 분야의 월급과 총괄적인 평가를 보여줌. 하지만 이중 재정-은행 분야는 없음

○ 보고서는 비엠티웍스에서 월급차이가 컸고 특히 기술 분야가 돋보임. 인기 있다고 평가된 분야(경리, 행정, 마케팅, 세일즈)의 평균월급이 565-1,125 만동 사이라면 정보통신분야(IT)의 평균 월급은 더욱 높음

○ 구체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월급이 1,578~2,250 만 동(직원)과 2,250~4,500 만동(관리직)임

○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IT 에 종사중인 직원 73%의 초봉평균이 1,578 만동으로 나타남

○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빠르게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각지방의 월급을 계산한 데이터에 따르면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대도시의 월급이 다낭시, 빈즈엉성이나 박닌성의 월급과 차이가 얼마나지 않음



-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차이는 160~210 만동 사이임. 생활 수준 차이를 고려한다면 이 차이는 얼마 아닌 것”이라고 전함
  - 직급에 따른 보편적인 월급액수는 사회초연생의 경우 565~1,125 만동, 팀장-관리직 경우 2,250~4,500 만동임. 사장이나 더욱 높은 직책의 경우 6,750 만동 이상임
  - 비엠티워크스는 매달 5 백만 번 이상 접속되는 일자리 웹사이트임. 현재 이 웹사이트는 베트남의 13,000 개 이상의 기업에 일자리를 해결해 주고 있음
- \* 출처: Vietnam-Korea Times, 10.11

## 베트남 공업단지 임대율 70%달성

- 2016 년 반 년 간 임대된 베트남 공업단지 총 면적은 28,500ha 로 2015 년 동기보다 5% 상승함
- 또한 외국자본직접투자 (FDI)가 작년보다 증가함에 따라 공업단지의 임대율은 70%를 달성함
- 이는 10 월 4 일 호치민에서 발효된 사비슬 (Savills) 베트남의 2016 년 반 년 간 전국에서 개의 신규 공업단지가 700ha 의 면적을 공급해 총 공업단지가 개수를 218 개로, 면적은 59,700ha 이며 임대가능한 면적은 41,000ha 로 증가했다고 전함
- 또한 16 개의 공업단지는 계획단계에 있으며 18,600ha 의 면적을 공급할 것으로 보임
- 임대고객에 관해 사비슬 베트남은 아시아의 ‘거대’ 생산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생산자인 LG 가 하이퐁시 (Tp.Hải Phòng)에 OLED 생산공장을 위해 15 억 달러를 투자함
- 한국의 투자자본이 40 억 달러로 등록된 총 FDI 자본의 35%를 차지하며 일본과 싱가포르가 각각 12 억 달러, 11 억 달러로 11%, 10%를 차지함
- 주의할만한 공업부동산 지방에 관하여 사비슬의 전문가들은 남부에서는 호치민시와 인접하고 국제항구와 가깝고 넓은 토지를 소유한 빈중 (Bình Dương)성과 동나이 (Đồng Nai)성이 공업의 중심이며 2016 년 반 년 간 각 성은 10 억 달러 이상 제조업체를 유치했다고 전함
- 공업단지 발전은 늦었으나 롱안 (Long An)성 또한 빠른 발전으로 16 개의 공업단지가 활동 중이며 3,000ha 정도의 임대가능 면적을 공급하고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

- 국제공항과 국제항구의 편리함으로 호치민시의 공업단지들은 조기에 발전하였으며 외곽의 군, 현에 위치하고 있음
- 하지만 투자의 중심은 고급기술 분야로 이전되고 있으며 토지와 인력을 사용하는 기존의 공업 분야는 호치민시에서 환영받지 못 하고 있음
- 또한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소수 신규 공업단지들은 임대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북부구역에서는 국제항구의 편리함으로 하이퐁시가 북부 공업단지의 발전 선봉자이다. 노무라 (Nomura)와 남꺼우끼엔 (Nam Cà Kiên)공업단지는 90~100%임대율을 달성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임
- 사빌스 베트남은 또한 사업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하이퐁 공업단지에 투자를 유치하는데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함
- 2016년 반년 간 하이퐁은 18억 달러의 FDI를 유치해 1위를 달리고 있음
- 대표적으로는 짜주에 (Tràng Duê)공업단지가 완성된 인프라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으며 LG의 15억 달러 투자, SL Electronics의 4억 2,500만달러 투자를 유치한 공업단지임

\* 출처: Vietnam-Korea Times, 10.11